

응답 없는 탄식의 기도: 시편 88편의 주석적 연구와 한국교회를 위한 실천적 적용*

김아윤(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교회는 팬데믹 이후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전통적인 신앙 표현 방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독교 전통에서 ‘탄식’(lament)은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는 중요한 신앙의 언어였다.¹

* 본 연구는 “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가 주최한 제 5회 선교적 성경해석학 컨퍼런스 “광야의 제자도와 선교” (2024년 11월 5일)에서 발표된 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 확장한 것임을 밝힌다.

1 시편 150편 중 약 1/3이 탄식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고통과 신앙 사이의 괴리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보편적이며 중요한 신앙의 요소였는지 알 수 있다. 학자들마다 각 시편의 장르분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음 시편들은 개인 탄식시로 분류할 수 있다: 시 3-7, 9-10, 13, 14, 17, 22, 25, 26, 27, 28, 31, 35, 38, 39, 40, 41, 42-43, 51, 52, 53, 54-59, 61, 64, 69, 70, 71, 77, 86, 88, 102, 109, 120, 130, 139, 140-143. 개인 탄식시로 분류된 시들의 대부분은

월트키(Waltke)는 탄식은 ‘인간의 실제’(reality)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신학적 인류학의 중요한 부분이며, 21세기 기독교에서 더 중심적인 관심사”라고 강조한다.²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 현장에서는 이 전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³ 성경적 탄식을 접하지 못한 성도들은 자신의 실존적 고통과 두려움을 신앙의 언어로 표현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종종 침묵하거나 신앙과 고통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한다.

탄식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적 기도’다.⁴ 특히 개인 탄식시는 대개 ‘하나님을 부름’, ‘과거의 구원에 대한 언급’, ‘불평/탄식’, ‘간구’-‘신뢰의 고백’, ‘응답의 확신과 찬양의 맹세’라는 형식적 요소를 가지며, 이러한 구조는 고통에서 찬양으로의 전환이라는 신앙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편 88편은 이런 전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있다.

긍정적인 전환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죽음의 현실, 사

시편 1-3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다.

- 2 Bruce K. Waltke, James M. Houston, and Erika Moore, *The Psalms as Christian L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2014), xi.
- 3 셀리어스(Saliers)는 개신교 예전에서 탄식이 사라지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1)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탄식시를 비롯한 시편에 담겨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시편과 다른 성경과의 상호텍스트성의 신학적 풍성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적 상상력은 메마르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로 우리에게 주어진 탄식시를 읽고, 노래 부르고, 설교하는 것이 결핍되었다. 2) 두 번째는 탄식시가 성서일과(lectionary)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3) 고대의 시와 오늘날의 나의 감정들(기쁨, 슬픔, 분노, 아픔, 혼란 등)을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 즐겁고 행복한 노래에 대한 요구가 더 크기 때문이다. Don Saliers, “Psalms in Our Lamentable World,” *Yale Journal of Music & Religion* 2 (2015), 104-105.
- 4 C. C. Broyles, “Lament, Psalms Of” in Tremper Longman III and Peter Enns ed.,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Wisdom, Poetry & Writing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8), 385.

www.kci.go.kr

회적 고립의 고통을 끊임없이 토로하며 끝나는 파격성 때문에 시편 88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시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시편 88편의 탄식과 유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편 22편은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시 22:2)로 시작하지만 고통의 탄식과 간구 후에 찬양의 맹세(시 22:22-31)로 마친다. ‘고라 자손의 시’이자 개인 탄식시인 시편 42-43편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하지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2:6,12; 43:4-5)로 마친다. 그러나, 시편 88편은 그런 전형적인 마무리를 거부한다. 베스터만(Westermann)이 주장하듯, 모든 시편은 탄식과 간구에서 찬양으로 나아간다는 일반적인 흐름에 있어 거의 유일한 예외가 바로 시편 88편이다.⁵ 바로 이러한 특징이 오히려 시편 88편을 현대 신앙공동체에 더욱 의미있는 본문으로 만든다. 이 시편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지속되는 고통, 하나님의 폭력과 침묵이라는 경험적 현실을 고발하며,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도록 이끈다.⁶

이에 본 연구는 시편 88편의 주석적 분석을 통해 응답 없는 탄식의 신학적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교회의 예배와 목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천신학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편 88편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본문의 주석적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본 후, 한국교회를 위한 실천적 적용 방안을 제시할

5 Claus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74-75.

6 하나님의 폭력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기민석, “하나님의 폭력과 신정론: 구약의 천상의회와 천사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9 (2023), 11-52; 류사라, “하나님의 폭력(violence)과 욕의 패러디(parody)”, 『구약논단』 88 (2023), 41-70.

것이다.

2. 시편 88편에 관한 선행연구

1) 교회 전통적 해석: 기독교적 해석

초기 기독교와 교부 시대에는 시편 88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빗대어 읽는 기독교적 해석이 주를 이뤘다. 예루살렘의 시릴(Cyril)은 구덩이에 버려지고(시 88:5), 친구도 없이 홀로 남겨진(시 88:9,19) 시편 88편의 묘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⁷ 어거스틴은 시편 88편을 그리스도의 기도로 보고, 죽음과 스올에 던져진 시인의 상태(시 88:4-5)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으로 이해했다.⁸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 시편 22편과 함께 시편 88편을 성금요일에 읽는 전통이 자리 잡았다.⁹ 루터는 십자가 신학의 틀(theologia crucis)에서 시편 88편을 이해했으며, 칼빈은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적 해석에서 벗어나 이 시편을 “절망의 벼랑 끝에 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의 형태”로 해석했다.¹⁰

2) 현대 해석학적 접근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시편 88편을 “전통적 신앙에 대한 당혹감”(an embarrassment to conventional faith)이라고 칭하며, 시편 88편은

7 Susan Gillingham, *Psalms Through the Centuries: A Reception History Commentary on Psalms 73-151*, Wiley Blackwell Bible Commentaries (Oxford: Wiley, 2022), 68-69.

8 Augustine, *Expositions on the Psalms on Psalm 88*; Gillingham, 윗글, 68-69.

9 김정우, 「시편 주석 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729.

10 Gillingham, 윗글, 68-69.

삶에서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직면하도록 하는 “성경적 신앙의 현실주의”(a mark of realism for biblical faith)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쉽게 위로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위해 필요한 묵회적 가치를 강조한다.¹¹ 브루그만의 해석은 이후 시편 88편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3) 질병과 고통을 중심으로 한 해석

상당수의 학자들이 시편 88편의 다양하고 집중적인 죽음에 대한 묘사 때문에 이 시편을 심각한 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박한 자의 기도로 해석한다.¹² 사우스우드(Southwood)는 시편 88편과 시편 102편의 두 시편 기자가 토로하는 “병듦의 경험”(illness experience) 중 육체의 병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 끼치는 영향, 특히 “낙인 찍기”(stigmatisation)와 “사회적 고립감”(social isolation), 즉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에 주목한다(시 88:9, 19).¹³ 그러나 호스펠트와 쟁어(Hossfeld and Zenger)가 지적했듯이 이 시편의 위기가 복합적(질병, 투옥, 외로움, 권리 박탈, 소망없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기 때문에 시편 88편의

11 Walter Brueggemann, *The Message of the Psalms* (Minneapolis: Augsburg, 1984), 78-81.

12 Hans-Joachim Kraus, *Psalms 60-150, Continental Commentaries* (Minneapolis: Augsburg, 1989), 192. 크라우스는 시편 88편의 화자가 심각한 병이 들어 성문 밖으로 쫓겨 난 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클라우스 자이볼트(Klaus Seybold)는 시편 88편을 병든 자가 회개하고 은총을 구하는 기도라고 보았다. Klaus Seybold, *Das Gebet Kranken im Alten Testament*, BWANT 99 (Stuttgart: Kohlhammer, 1973), 117. Frank-Lothar Hossfeld and Erich Zenger, *Psalms 2, Hermen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393에서 재인용; 김태경은 시편 6편, 38편이 건강이 악화되는 초기, 중기를 다룬다면, 88편은 질병이 악화되어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 후기로 보고, 건강 악화에 따라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더욱 깊은 성찰과 실존적 측면이 강화되며 인간과의 관계 변화에서는 고립과 고통이 심화됨을 관찰한다. 김태경, “건강의 악화와 회복에 따른 탄원의 변화 과정 연구” 「구약논단」 45 (2012), 207-234.

13 Kathertine Southwood, “Metaphor, Illness, and Identity in Psalms 88 and 102”,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vol. 43/2 (2019), 228-246.

위기를 육신의 질병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¹⁴

4) 정경적 접근

쟁어(Zenger), 콜(Cole), 김희석은 시편 제 3권의 맥락 속에서 시편 88편의 문학적, 신학적 기능에 주목한다.¹⁵ 이들은 시편 88편이 주변 시편들(84-87편, 89편)과 가지는 표제어적, 언어적, 주제적 유사성을 살펴 보고, 시편 88편이 시편 84-87에서 긍정적으로 제시되는 단어와 주제들을 부정적 결론 도출에 사용하고, 89편의 후반부는 의도적으로 88편의 단어와 주제를 사용하여 다윗 언약이 부정되고 실패한 듯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을 밝힌다.

5) 트라우마와 홀로코스트 해석

만돌포(Mandolfo)는 시편 88편에 대한 신정론적 해석(theodic interpretation) 경향을 지적하면서, 찬양으로의 전환도, 탄원하는 시인의 고통에 대한 어떠한 의미 부여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정당화도 하지 않은채, 오직 고통 받는 자의 목소리만을 들려주는 “시편의 골칫덩어리”(the black sheep of the Psalter)인 시편 88편이야말로 “홀로코스트 이후의 세상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기도”라고 평가한다.¹⁶

14 Hossfeld and Zenger, 윗글, 391, 393.

15 Robert L. Cole, *The Shape and Message of Book III (Psalms 73-89)*,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vol. 30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167; Hossfeld and Zenger, 윗글, 396-397, 413; Hee-Suk Kim, “An Intertextual Study of Psalm 88 in the Context of Psalm 84-89 and Its Theological Implications,” 『개혁논총』 17 (2011), 9-40.

16 C. Mandolfo, “Psalm 88 and the Holocaust: Lament in Search of a Divine Response,” *Biblical Interpretation* 15 (2007), 152, 154. ‘대화적으로 읽기’(dialogical reading)를 시도하는 만돌포에 따르면 개인 탄식시 안에 탄원하고 간구하는 목소리와 교훈적인 응답의 목소리가 공존하며 신앙과 현실 경험 사이의 다툼을 반영한다. 그러나 시편 88편은 시인만의 극단적 독백(singularly monologic)이 매우 특징적이다.

6) 목회적 돌봄을 위한 해석

최근 연구들은 시편 88편의 고통과 절망의 정직한 표현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는 신자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카슨(Carson)은 아이를 잃었거나 심각한 우울증 등 삶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거나 또는 영적 침체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시편 88편은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을 진단하고 표현하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¹⁷ 칼슨(Carlson)은 공적 예배 가운데 탄식시가 사용될 때 트라우마 희생자들에게 치료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¹⁸

이렇듯 시편 88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는 가운데,¹⁹ 본 논문은 어느 때보다 탄식의 언어가 필요한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다소 극단적이고 어둡게만 보이는 시편 88편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 교회 안에서 성경적 탄식의 자리를 마련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17 Marion L. S. Carson, “Sheer Grace: Psalm 88, Depression and the Dark Night of the Spirit”, *Communio Viatorum* 59/2 (2017), 160-176.

18 Nathaniel A. Carlson, “Lament: the Biblical Language of Trauma”, *Cultural Encounters* 11/1 (2015), 50-68.

19 시편 88편에 관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잘 분류하고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 논문으로 June F. Dickie, “Psalm 88 with its Contexts (Historical, Literary, Canonical, Modern, and Psychological): Do they help with Interpretation?”, *Scriptura* 122 (2023:1): 1-21를 참조하라. 디키(Dickie)는 시편 88편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역사적, 문학적, 정경적, 현재적, 심리학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소개하면서, 시편 88편 해석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현대적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낸다. 그는 시편 88편이 무고한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난제를 정직하게 제기함으로써, 단순화된 인과응보적 신학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평가한다.

3. 시편 88편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위치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르안돗에 맞춘 노래”라는 매우 복합적인 표제어가 붙어있다.²⁰ 이 복합적인 표제어는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해석 의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라 자손’은 예배 음악을 담당한 레위 지파로,²¹ ‘고라 자손의 찬송시’는 87편과 표제어 배열을 대비시키면서 시편 88편을 고라 자손의 시(시 42-49; 84-85, 87편)의 연장선상에서 읽도록 유도하고 있다.²² 시편 88편은 고라 시편 모음집 중 가장 어두운 노래로, 시온을 노래하는 이들의 찬양 시편(시 48, 84, 87편)과는 대조를 이룬다. “마할랏 르안돗”이라는 음악적 표지 역시 이러한 내용에 맞는 곡조를 사용하라는 지시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²³

표제어에 언급된 “에스라인 헤만”의 정체에 대해서는 두 견해가 존

20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 중 마지막 시편으로, 이런 복합적 표제어는 이전에 고라 시편들에 사용된 표제어의 요소들을 모두 모아 놓은 것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노래’, ‘시’, ‘마스길’, ‘인도자를 위하여: ...에 맞춘’은 고라 자손의 시편들에 사용되는 표제어 요소들이다. 시편 표제어와 내용의 상관성에 관한 논문은 다음을 참고하라. 손세훈,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이해” 『구약논단』 16/2 (2010): 92-189.

21 박지온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에 집중하여 고라 사건(민 16장; 26:11)을 배경으로 “고난과 제앙으로부터 살아남은 자의 관점”에서 시편 88편 읽기를 시도한다. 박지온에 따르면 시편 88편에 나타난 탄식은 죽음의 상황에 처한 경험과 공포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외치는 “고통의 외침”인 동시에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은 “기쁨의 함성”이기도 하다. 박지온, “침묵과 표출”, ‘거부와 설명’에 대한 변증법: 살아남은 자의 탄식으로 본 시편 88편 연구, 『성서신학』 85 (2024), 105-128.

22 Cole, 윗글, 167.

23 “마할랏 르안돗”은 다른 시편의 음악적 표제어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고 더군다나 이 표현은 시편 88편에만 사용된다(참조. 시편 53:1). ‘마할랏’이 מַחֲלַת의 명사형인 고통, 재난, 질병을 의미한다는 견해, מַחֲלַל(찌르다)에서 파생한 단어로 보는 견해도 있고, 혹은 관악기를 연주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Marvin E. Tate, *Psalms 51-100*, WBC vol. 20 (Dallas: Word Books, 1998), 394-395.

재한다. 일부는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왕상 5:11; 대상 2:6)인 유다 지파의 헤만과 동일시하며,²⁴ 다른 학자들은 다윗 시대에 성전 음악을 담당한 레위인 헤만(역대상 6:16-18, 15:17, 25)으로 이해한다. 레위인 헤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시편 표제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일관된 경향(다윗, 아삽, 여두둔 등)과도 부합한다.²⁵ 그러나 시편 88편의 헤만의 저작 가능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시편 89편의 표제어와 연결점을 형성하면서, 시편 3권의 마지막에 배치된 두 시편 88-89편을 짝지어 읽도록 하는 문학적 장치라는 점이다.²⁶ 이 때문에 시편 88편의 저작 시기와 역사적 맥락은 명확하지 않지만, 학계는 대체로 시편 88편을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해석한다. 호스펠트와 쟁어는 시편 88편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죽음의 이미지는 여호와와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반영한다고 본다.²⁷ 한 발 더 나아가 시편 88-89편은 모두 시인들이 토로하는 문제의 해결이 없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인간편에서의 질문으로 끝나지만, 시편 4권의 시편들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문맥적 구

24 Victor H. Matthews, “Heman (Person),” in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ed. David Noel Freedman (New York: Doubleday, 1992), 137.

25 James M. Hamilton Jr., *Psalms*, ed. T. Desmond Alexander, Thomas R. Schreiner, and Andreas J. Köstenberger, vol. 2 of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Bellingham, WA: Lexham Academic, 2021), 125. 해밀턴은 그의 주석에서 출론 시편 88편의 저자를 보다 일반적인 시편 기자 혹은 시인이라고 하지 않고 헤만이라고 지칭한다.

26 시편 88편은 주로 개인 탄식시로 분류되고, 시인은 ‘나’라는 1인칭 개인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시편 3권의 문맥은 시편 88편이 한 개인의 고통의 외침을 넘어서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FOTL vol. XV (Grand Rapids, MI: Eerdmans, 2001), 141; Hossfeld and Zenger, 윗글, 396-397, 413.

27 Hossfeld and Zenger, 윗글, 394; 반면, 굴더는 시편 88편을 포함한 ‘고라 자손의 시’가 포로기 이전 북이스라엘 단(Dan) 지역의 축제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사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Michael Goulder, *The Psalms of the Sons of Korah*, JSOT Supplement (University of Sheffield, 1982).

성(시 90-91편)을 통해 시편 88편의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한다.²⁸

결론적으로, 시편 88편은 육체적, 감정적, 관계적, 사회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개인의 고통과 절망을 표현하면서도, 공동체가 예배 중에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기록되었다.²⁹ 이 시편의 탄식은 시편 87-88-89편으로 이어지는 배열 안에서 시온 신학의 위기와 다윗 언약의 실패라는 포로기의 역사적 현실과 이에 따른 신학적 위기와 맞물려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신앙의 부르짖음을 담아낸다.

4. 시편 88편의 주석적 분석

1) 구조 분석

시편 88편은 고통 중에 있는 개인의 탄식을 다루는 시편들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띠는 시이다. 시의 첫머리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어!”라는 부름으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은 “나의 친구는 오직 어둠뿐입니다!”라는 절망의 선언으로 닫히며,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아닌 ‘어둠’만 남는 독특한 구조를 보인다.³⁰ 이를 통해 시인은 자신이 겪는 하나님 부재의 상황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시편 88편은 외부의 원수나 공격자에 대한 언급 없이, 시인이

28 Brent A. Strawn, “The Black Hole at the Center of the Psalms,” *Interpretation* vol. 78(2) (2024): 106-119.

29 거스텐버거(Gerstenberger)는 시편 88편의 강렬한 탄식이 성전 밖 소규모 공동체(가족, 마을 단위)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하나님과 시인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반영하는 신앙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Gerstenberger, 윗글, 145-146.

30 Dickie, 윗글, 17.

겪는 고통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도 단절된 자신의 상황을 죽은 자와 같다고 묘사하면서, 이러한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지적한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탄원자의 고난의 원인이자 유일한 해결자이다.³¹ 브로일스(Broyles)는 이러한 점에서 시편 88편이 다른 개인 탄식시들과는 구별되는, 예외적으로 강화된 ‘하나님-탄식’(God-lament)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³²

시편 88편은 ‘일인칭 고통의 묘사’(I-lament)와 ‘하나님을 향한 항의와 고발’(God-lament)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세 번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시의 구조적 중심을 이룬다. 본 논문은 시인의 반복적인 기도와 시제 구조에 주목하여 시편 88편을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연으로 구분한다.³³

1) 2-10a[1-9b]절:

첫 번째 부르짖음과 간구(2-3절)
죽음의 경험 묘사(4-6절)
하나님 고발(7-10a절)

2) 10b-13[9b-12]절:

두 번째 부르짖음과 간구(10b절)
신학적 질문들(11-13절)

31 조재한, 방기민, “시편 88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 『대학과 선교』 62 (2024), 63.

32 Broyles, 윗글, 388.

33 시편 88편에 대한 구조 분석은 학자마다 다양한데, 크게 두 연(1-9a, 9b-18절)에서 네 연 혹은 그 이상의 단락으로 구분한다. 본 논문은 시인의 세 번의 부르짖음과 간청을 기준으로 세 연으로 나누었으나 2-10절, 11-13절, 14-19절의 세 연으로 나누기도 한다. 예를 들면, 김정우는 11-13절의 의문문을 독립적인 단위로 구별하고, 2절과 10절의 시간 (낮과 밤/온 종일) 표현과 부르짖음을 수미일치를 이루는 하나의 연으로 묶고, 2-10절의 첫 번째 애통과 주제와 구성이 비슷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됨을 묘사하는 14-19절을 세 번째 연으로 나눈다. 김정우, 윗글, 727-729; Hossfeld and Zenger, 윗글, 395.

3) 14-19(13-18)절:

세 번째 부르짖음과 간구(14절)

질문(15절)

고통의 묘사와 고발(16-19절)

세 연의 시작은 모두 여호와를 부름, 부르짖는 간청 동사와 시간 표현으로 구성되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는 문학적 장치를 포함한다. 각 단락의 첫머리(2, 10b, 14절)에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יהוה)가 1절에서는 첫 번째, 10b절에서는 두 번째, 14절에서는 문장의 세 번째 단어로 사용되어 점점 뒤로 옮겨가는데, 이는 하나님의 얼굴(임재)이 시인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³⁴

특히, 두 번째 연의 연속되는 질문(11-13절)은 독자에게 이 질문 뒤에 상황의 반전이나 응답이 올 것 같은 일종의 기대감을 제공하지만, 세 번째 연은 오히려 상황의 악화를 묘사하며 전환이나 응답 없이 다시 절망으로 회귀한다. 이는 시인의 부르짖음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침묵은 더욱 깊어지고, 시인이 경험하는 고통은 더욱 선명해지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처럼 시편 88편에서 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발(God-lament)과 항의가 자신의 실존적 고통(I-lament)과 긴밀히 얽혀 있으며, 시인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를 스올에 던지신 분도, 그곳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34 Hossfeld and Zenger, 율글, 393.

2) 시편 88편 본문 주석

(1) 부르짖음과 간구(2-3, 10b, 14절)

시인의 첫마디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여(יְהוָה אֱלֹהֵי יִשְׁעָתִי)!”이다(2절). 이 첫 마디는 가장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신학적 기초이자, 시인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해 준다. 아무리 오랜 시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시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 시편 88편의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분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침묵에 시인도 덩달아 침묵하지 않으며, 부재하시는 것 같은 “주 앞에”(פְּנֵי־יְהוָה)(2절) 자신의 위치를 고정시키며, “주의 얼굴을 향하여”(לְפָנֶיךָ)(3절) 기도한다. 시인의 격정적인 부르짖음은 시인이 사용하는 단어에서 나타난다. “부르짖었사오니”(בִּצְעָקִי)(2절), “나의 부르짖음”(רִנָּתִי)(3절)은 큰 소리를 내어 외치고 간구하는 소리를 뜻한다.³⁵ 14절의 부르짖음(בִּצְעָקִי)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듯한 외침의 소리다(욥 2:3). 시인의 기도는 “고상한” 기도나, 응답이 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도다.³⁶

이런 시인의 간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시인은 “주야로”(לַיְלָה/יוֹם) 부르짖으며(2절), “매일”(כָּל-יוֹם)(10b절) 주를 부르며, “아

35 ‘בִּצְעָקִי’는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의 핏소리(창 4:10), 아우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절규(창 27:34), 굶주림에 양식을 달라 구하는 소리(창 41:55),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왔던 외침(창 18),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부르짖는 소리(민 20:16; 신 26:7), 강간의 위기에서 지르는 비명(신 22:24, 27), 외국의 무력 침략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삿 4:3),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회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외침(사 5:7),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내는 소리(사 65:14)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36 낸시 드클라이제-왈포드, 로프 제이콥슨, 베스 라닐 태너, 「NIOCT 시편」(강대이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9), 813. 원저 Nancy L. deClaissé-Walford, Rolf A. Jacobson and Beth Laneel Tanner, *The Book of Psalm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14).

침에”(קָבַץ)(14절) 기도하며, 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 앞에서’(2절), ‘주를 향하여’(10b절), ‘주께’(14절) 기도한다. 시인의 슬픔과 고통은 그로 하여금 침묵하시는 주님을 포기하고 부르짖음의 자리를 떠나 다른 길로 가도록 하지 못한다. 브루그만(Brueggemann)에 따르면 시편 88편에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시인이 보여주는 끈질긴 대화의 시도와 대담하며 저항적인 질문들은 하나님 편에서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³⁷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기를,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지만, 놀랍게도 정작 전형적인 구원 행위를 간구하는 동사는 사용하지 않는다.³⁸ 시인은 구원하실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시인을 구원하지 않는 주님께 나오기를 쉬지 않는다. 이는 여호와의 속성과 능력이 변하지 않음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2) 시인의 고통 묘사: 죽어가는 경험 (4-6절)

시인의 첫 번째 부르짖음은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묘사를 동반한다. 시인은 그의 삶이 ‘재난으로 가득’하여 충족한 인생이 아니었으며, 하나님과의 사귄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의 생명이 스올의 문턱에 이르러 죽음이 매우 가까이 있음을 호소한다.³⁹ 렌(Wrenn)은 시편 88편 전체에 쓰인 신체 언어 사용에 주목하고, 4절의 נָפַץ(네페쉬/영혼)를 그 어원인 ‘목구멍’에 착안하여 시인의 상황을 매우 극적으로 번역한다: “악이 내 목을 조르고 있으므로, 내 생명이

37 Brueggemann, 윗글, 78-81.

38 Gerstenberger, 윗글, 145.

39 Hossfeld and Zenger, 윗글, 395.

스울(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⁴⁰ 무엇보다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 — ‘스울’(שׁוּל)(4), ‘무덤’(קֶבֶר)(6), ‘웅덩이’(בֹּרַ)(5, 7), ‘죽은 자’(מֵתִים)(6), ‘죽임 당한 자’(מֵתֵי־לָמָּוֹת)(6) — 과 ‘어둠’(חֹשֶׁךְ) 관련 단어들(7, 13, 19절)은 시인이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반영한다. ‘웅덩이’(5), ‘무덤’(6), ‘가장 깊은 곳’(7), ‘어두운 곳’(7)은 모두 죽음의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들로 시인은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져 이미 죽음과 어둠의 세계에 도달한 것만 같다고 표현한다.⁴¹ 스트론(Strawn)은 시편 88편의 이 강력한 이 ‘구덩이(개역개정: 웅덩이)’이 모티프를 시편 한 가운데 있는 “블랙홀”에 비유한다.⁴²

특별히 시인은 숨은 쉬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 같은 자신의 상태를 전쟁에서 힘이 다하여 죽임을 당해 시체 더미 가운데 버려진(혹은 자유해진) 용사의 이미지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표현한다(5-6절).⁴³ 이러한 강렬한 죽음의 언어와 이미지 때문에 이 시편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시인을 거의 죽음에 몰아 넣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시편 88편 전체를 볼 때 시인이 호소하는 고통의 요인으로 외로움, 간힘, 절망, 권리를 빼앗김, 버림받은 느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죽음에 한정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⁴⁴ 시인에게 있어 스울/

40 Rachel A. Wrenn은 각 절은 하나님의 몸(2, 5c, 14b절), 시인의 몸(3, 9, 14a절), 보편적인 인간의 몸(5, 10절)에 적용되는 신체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Rachel A. Wrenn, “Is he Psalmist Angry at God?: Psalm 88 and the Absent Nose,” Word & World vol. 40 (2020), 242.

41 Hossfeld and Zenger, 윗글, 395.

42 Strawn, 윗글, 106-119.

43 김정우, 윗글, 732-733.

44 Hossfeld and Zenger, 윗글, 391.

무덤은 ‘하나님과과의 교제’의 영역을 벗어난 곳이다.⁴⁵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상태는 시인에게 더이상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5-6절의 묘사에서 하나님은 고통을 야기하는 주체로 그려지지 않지만, 7절부터는 시인을 현재의 고통 속에 몰아 넣으신 하나님에 대한 걱정적 불평(complaint)이 시작된다.

(3) 하나님에 대한 고발 (7-10a절)

88:7	주께서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 두셨사오며(יָשַׁנְתִּי),
88:8	주의 노(הַמָּוֶה)가 나를 짓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כָּל-מַשְׁבָּרֵי)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עָנִיתָ).
88:9	주께서 내 친구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고(הִרְחַקְתָּ),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שָׁתַנְתִּי), 나는 갇혀 빠져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88:10a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7-9절에서 모든 동작의 주어는 ‘주님’(당신)이다. 대부분의 개인 탄식시는 원수, 행악자, 혹은 다른 종류의 해가 되는 상황에서 비롯되지만, 시편 88편은 공동체 탄식시와 비슷하게 시인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분에게만 향한다.⁴⁶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시인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이것은 시인에게 큰 고통의 이유가 된다.⁴⁷ 특히 7-9절은 “당신이 나를 …에 두다”(שָׁתַנְתִּי)로 시작하고 마치면서(7, 9b절), 시

45 Brueggemann, 윗글, 79.

46 Gerstenberger, 윗글, 143.

47 Wrenn, 윗글, 243.

인의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⁴⁸ 5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구덩이(בֹּרַי)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했는데, 7절에서는 자신을 구덩이의 제일 밑바닥(תְּהוֹמֵי הַבֹּרַי), ‘가장 어두운 곳,’ ‘물의 가장 깊은 곳’에 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발한다. 시편에서 ‘구덩이’는 ‘피난처’와 반대되는 은유로, ‘피난처,’ ‘바위’가 생명이 있는 곳, 가장 높은 장소인 시온의 은유라면(시 61:2b-3;) 시인의 마음에 ‘구덩이’는 ‘스울’과 함께 죽음으로 내려가는 “싱크홀”(sinkhole)과 같다(시 28:1; 30:4; 40:3; 69:15; 143:7; 참조, 애 3:53, 55)⁴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괴적인 모든 상황들은 시인에게 마치 사방으로 몰아치는 성난 파도와 소용돌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할 때 허우적 거리며 느끼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준다.

시인의 고통은 “사회적 죽음”에서 극에 달한다(9; 19절).⁵⁰ 그가 극심한 곤경에 처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시 31:11; 55:13; 욥 19:13-14)을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들에게 ‘가증한/역겨운 것’(תֹּעֲבֹבוֹת)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⁵¹ 시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תֹּעֲבֹבוֹת(토에봇/가증한 것)의 용례를 보면, 그가 그의 지인들의 눈에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

48 이일레, “시편 88:11-13은 수사 의문문인가? 일반 의문문인가?” 『성경원문연구』 35 (2014), 102-103.

49 William P. Brown, *Seeing the Psalms: A Theology of Metaphor*,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26.

50 Hossfeld and Zenger, 윗글, 395.

51 ‘가증한 것’(תֹּעֲבֹבוֹת)은 주로 우상 숭배(신 27:15; 32:16; 왕상 16:3; 왕하 23:13; 사 41:24; 44:19; 렘 2:7; 32:34; 겔 5:11; 7:3-4, 8, -9, 20; 8:6, 9, 13, 15, 17; 대하 28:3 등)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로, 이외에 성적 부도덕(왕상 14:24), 부정직한 저울(신 25:16; 잠 11:1; 20:10), 위선적인 예배(사 1:13), 교만과 거짓(잠 6:16-17; 12:22; 16:5 등) 등 악한 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시편 전체에서 ‘가증한 것’은 시편 88편에서만 쓰인다.

수 있다.⁵² 이러한 상황에 시인은 갇혔고, 이 곤경은 그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9절). 읊과 같이 시인은 이유를 알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곤경의 상자에 몰아 넣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고통의 바다 속에서 시인의 생명력은 점점 꺼져간다(10a절).

(4) 질문, 질문, 질문(11-13절; 15절)

시인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지만, 11-13절은 일련의 수사학적 질문들을 던지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항의(protest)를 더해간다.⁵³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이까?” 등의 연쇄적 의문문은 답을 요구하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붙이는 듯하다. 이 질문들은 사실상 부정적인 답을 예상하고 있는 수사적 질문들로(시 6:5; 115:17), 이러한 문학적 장치는 시인의 내면에 쌓인 혼란과 슬픔의 에너지를 보여주며, 절정으로 치닫는 시인의 절망과 항변을 체감하게 한다.⁵⁴

52 김정우, 윗글, 734.

53 시편 88:11-13의 연속된 질문에 대한 견해는 크게 1) ‘아니다’라는 답을 상정하는 수사적 질문으로 보는 견해와 2) 진정한 의문문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이일레와 Anja Marschall은 이 질문들을 진정한 의문문으로 해석한다. 시인은 살아 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물으며,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인은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졌고(5절)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기에, 구원의 하나님께 기적을 행해 주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nja Marschall, “Lament of the Walking Dead: The Lamenting Engagement with the Local Sphere, the Social Implications, and the Bodily Expression of Death in Ps 88 and Job 7,”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36(2)(2024): 191-205, 195-97; 이일레, 윗글, 87-116.

54 김정우는 11-13절의 질문에 대한 답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전적인 부정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통해 “구약 신앙의 마지막 경계점까지 나아가며 주님께 자신을 던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정우, 윗글, 735-736.

밴게메렌(VanGemen)은 “진실된 믿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이며, 그 믿음의 깊이는 버림받은 상황에서 “질문의 형태로 표현된다”고 언급한다.⁵⁵ 이 세 번의 질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에 따라 행동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현재 시인에게는 전혀 경험되지 않는다. “주의 인자하심”(יְרֻמָּה), “주의 성실하심”(אֱמוּנָתְךָ), “주의 기적”(פְּלִאֵיֶיךָ), “주의 공의”(צְדִיקָתְךָ)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기적과 구원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⁵⁶ 그러나 시인이 지금 경험하는 현실은 “무덤”(12절), “아바돈”(지하세계)(12절), “흑암”(13절)이며, “잇음의 땅”(13절)에 있는 “죽은 자”(11절), “유령들”(11절)과 같다. 시인이 처한 곳은 생명의 활동이 없고, 기쁨이 없는 곳이다. 시인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속히 개입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기적”(פְּלִאֵיֶיךָ)(11, 13절)을 두 번 사용한 것은 시인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 구원임을 시사한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인을 죽음의 세계에 방치하는 것은 시인의 찬양을 받아야 할 하나님께 손해가 된다. 시인은 다른 탄식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의 처지에서 구원해 내셔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 자신의 이익에 호소한다.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촉구하는 연속된 질문 이후에도 구원의 확신, 감사의 찬양과 같은 긍정적인 쪽으로의 전환은 오지 않는다. 11-13절의 질문처럼 자신의 성품과 능력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시는 하

55 Willem A. VanGemen, *Psalms, The Expositor's Commentary* vol. 5 revised edition (Grand Rapids: Zondervan, 2008), 661.

56 VanGemen, *윗글*, 661.

나눔을 대하여 시인의 태도는 결연하다. 세 번째 간구를 시작하는 ‘그러나 나는’(יִנְיָ)(14절)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대하여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정하는 시인의 결연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와 이름이 14,15절에 반복되는 것을 통해 시인의 간절함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⁷

그리고 질문은 계속된다(15절). 11-13절은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왜”(מָה)라는 질문을 던진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נָתַתָּ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הִסְתָּתָה)?”(15절) 시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질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것과 같은 외침이기도 하다(시 10:1; 22:2; 43:2; 44:25; 74:1).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간구는 결국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채 시편 88편이 끝남으로써, 질문 자체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남는 연출을 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נָתַתָּה(자나흐/거절하다)의 용례다. 시편 88:15과 시편 43:2을 제외하고 이 동사는 이스라엘을 버리심(시 44:10,24; 60:3,12; 74:1; 77:8; 108:12; 애 2:7; 3:31; 숙 1:16)과 다윗 계열 왕을 버리심(시 89:39; 대상 28:9)에만 사용된다는 점이다. 다윗 시편에 속한 개인 탄식시에서는 버림받음, 거절을 표현할 때 ‘아자브’(עָזַב)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시 22:2; 38:22; 71:9,18), 시편 88:15에서 נָתַתָּה(자나흐)의 사용은 의도적으로, 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과 절망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운명과 맞닿아 있음을 암시한다.

57 Hossfeld and Zenger, 율글, 393.

(5) 강화된 하나님에 대한 고발 (16-19절)

88:7 주께서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 두셨사오며 (יִתְּנִי),	88:16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음이 가까우며, 주의 두려움(יְאֻמִּי)에 혼비 백산 하였습니다.
88:8 주의 노(הַמָּתָה)가 나를 짓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כָּל-מַשְׁבָּרֶיךָ)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עָנִיתִי).	88:17 주의 진노(הַרְוֵנִי)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יְבַעֲתֶיךָ)이 나를 파멸시키셨습니다. 88:18 이런 일이 물 같이 종일 나를 에우며 나를 둘러쌌나이다.
88:9 주께서 내 친구들(מִיָּדָעִי)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였고(הִרְחַקְתָּ),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יִתְּנִי), 나는 갇혀 빠져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88:19 주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마저 내게서 멀어지게 하셨으니(הִרְחַקְתָּ), 나의 친구(מִיָּדָעִי)는 … 어둠(מַחְשֶׁךְ)!

16-19절은 7-9절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비슷한 전개를 보여주지만, 훨씬 더 강화된 표현을 사용한다. ‘종일’(כָּל-הַיּוֹם)(18절), ‘내 어릴 적부터’(16절)의 시간적 표현은 시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시인을 괴롭게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8절의 ‘종일’(כָּל-הַיּוֹם)은 10b절의 두 번째 간청에서 쓰이는 “매일”(כָּל-יּוֹם)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맥락에서 쓰여서, 하나님을 향해 종일 부르짖는 간구가 거절되고 오히려 지독한 고통이 심화되는 것을 보여준다.⁵⁸ 17-18절도 역시 시인을 에워싸는 강력한 물의 이미지를 사용해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을 언급한다. 시인을 “종일…에우며,” “함께… 둘러” 한시도 멈추지 않고 빠져나갈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삼키는 물처럼 시인을

58 Hee-Suk Kim, 윗글, 15-18.

덜치고 있다. 처음 언급된 고통이 나중에는 더 강렬하게 변주되어, 고통의 파도가 거둑 밀려와서 시인을 완전히 휩쓸고 있다. 시인을 ‘괴롭게’ 하던 주의 파도는(8절), 시인을 두려움에 몰아 넣고 ‘파멸시켰다’(17절).

시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욕이 자신의 고난을 묘사할 때와 유사하다.⁵⁹ 16절 ‘주의 두려움’(יִרְאָה)에 쓰인 명사는 욕기에 6회 사용되고, 17절의 ‘두려움’(בְּעִתִּי) 명사는 이 본문과 욕기 6:4 “하나님의 두려움”에만 쓰이며, 욕은 거둑 하나님 이 그를 두렵게 한다고 고백한다(욕 7:14; 9:34; 13:21). 또한, 시인은 욕과 같이 슬픔으로 눈이 침침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시 88:10a; 욕 17:7). 욕과 마찬가지로 시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시인이 당하고 있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그의 죄에 따른 심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는 시인의 입장에서는 불가해할 뿐이다. 욕기와 함께 시편 88편은 죄와 육체의 병과 사회적 고립 같은 고통을 단순한 인과응보적 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⁶⁰

19절은 9a절 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더욱 친밀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이웃’까지도 시인에서 멀어지게 하셨다고 고발한다. 오래되고 심각한 고난은 인간 관계의 단절을 초래한다. 하나님도 사람들도 시인을 버렸고, 이제 시인 곁에는 어둠 뿐이다(יְהִי עֲלַי חֹשֶׁךְ)(19b절).⁶¹ 시편 88편

59 Anja Marshall, “Lament of the Walking Dead: The Lamenting Engagement with the Local Sphere, the Social Implications, and the Bodily Expression of Death in Ps 88 and Job 7,” ZAW 136(2) (2024), 191–205.

60 Caroline Blyth, “‘I am alone with my sickness’: voicing the experience of HIV- and AIDS-related Sigtma Through Psalm 88,” Colloquium 44/2 (2012), 160.

61 19b절은 두 개의 명사(יְהִי עֲלַי חֹשֶׁךְ)만 있는 절이라 두 명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번역이 제안되었다: 개역개정은 9절과 19절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9b절의 חֹשֶׁךְ(두다)를 19b절에 적용하여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로 번역한다. LXX는 יְהִי עֲלַי חֹשֶׁךְ를 전치사인 “나의 불행함으로부터”로 번역하지만, 이는 시편 88

의 마지막 단어가 ‘어둠’인 것은 시인이 느끼는 현실의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5. 시편 88편의 신학적 의의

시편 88편은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속에서 끝나는 유일한 시편으로서, 성경 정경 내에서 독특한 신학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 시편이 역사 속 한 개인의 특수한 상황보다는 전형적인 고통의 언어로 인류 보편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시대의 신앙공동체에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⁶²

첫째, 시편 88편은 모든 기도가 즉각적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교정한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시편이 성경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⁶³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부름에 언제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실 수 있다. 시편 88편은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경험 — “숨어 계시는 하나님”(Deus absconditus) — 도 정당한 신앙 경험이며, 의심과 절망도 신앙의 일부임을 보여주며, 성공 신학(prosperity theology)과 ‘승리주의’(triumphalism)에 빠진 현대 교회에 필요

편이 어둠으로 끝나는 강력한 이미지를 약화시킨다. NIV는 약간의 의역을 더해 “어둠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번역한다. 여기서는 히브리어 본문을 살려 마지막 단어를 ‘어둠’으로 번역했다.

62 윌리엄 브라운, 「시편」 (하경택 옮김) (구약학입문시리즈 3;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26-227.

63 Paul A. Baglyos, “Lament in the Liturgy of the Rural Church”,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36/4 (2019), 261.

한 균형을 제공한다.⁶⁴

둘째,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고통이 지속되는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편 88편의 역설은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초래했다고 항의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점이다. 고통의 정점에서조차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여”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역설적 믿음의 고백이다.⁶⁵

셋째, 시편 88편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성경적 탄식의 언어를 제공한다.⁶⁶ 탄식은 단순한 감정 해소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하여 무너져버린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며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대화다. 비록 시인의 독백 뿐인 시편 88편이지만 이 또한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인간 편에서의 정직한 대화다. 이 시편은 전통적 신학의 틀로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친구들처럼 성급한 답변이나 신학적 논쟁보다 먼저 고통의 소리를 듣도록 요구한다.

넷째, 시편 88편은 탄식을 통한 공동체적 연대의 가능성을 가르쳐 준다. 시편 88편의 시인은 완전히 고립되어 ‘어둠만이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지만, 시편의 표제어는 개인적인 탄식이 공동체 예배에서 불러 지던 찬송가였음을 시사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 공동체 예배에서 불러졌다는 사실은, 개인의 고난에 공동체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치 ‘사도신경’의 고백이 모두 ‘나는 … 믿습니다’로 이

64 Joo, Jonghun, “They Cried Out to God: Lamenting as a Way of Finding Hope in Uncertain and Challenging Times”, 『생명과말씀』 30 (2021), 189.

65 Brueggemann, 윗글, 80.

66 Andrew J., Schmutzer, “Longing to Lament: Returning to the Language of Suffering,” Andrew Achmutzer and David M. Howard, *Between Pain & Grace: A Biblical Theology of Suffering*, Chicago, Moody Publishers, 2016.

루어진 개인의 고백이지만 이것을 공적 예배에서 함께 읽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처럼, 시편 88편의 ‘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다.⁶⁷ 시편 88편과 같은 어두운 시편을 함께 읽을 때,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이 느끼는 “내적 혼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⁶⁸

6. 탄식기도의 실천적 방안

시편 88편과 같은 짙은 어둠 속의 절규를 포함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들(고통, 슬픔, 분노 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은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건강한 신앙 생활의 필수적 요소이다.⁶⁹ 25년간 목회를 해온 브로곱(Vroegop)은 자녀를 잃는 슬픔을 통해 “탄식의 구속적인 가치”를 깨달은 후로 시무하는 교회에서 탄식(lament)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나와 탄식시 속에 담긴 “깊은 은혜”(deep mercy)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도했다.⁷⁰ 다음은 그의 책 *Dark Clouds, Deep Mercy*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한국 교회 안에서 성경적 탄식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67 Baglyos, 윗글, 261.

68 G. Harper, “Lament and the Sovereignty of God: Theological Reflections on Psalm 88” in David G. Firth ed., *Finding Lost Words* (Eugene, Oregon: Wipf & Stock, 2017), 87-88.

69 최창국, “시편의 애가에 나타난 기도의 지평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60 (2021): 164-198.

70 Mark Vroegop, *Dark Clouds, Deep Mercy: Discovering the Grace of Lament* (Wheaton, IL: Crossway, 2019), 20.

1) 개인적 차원

(1) 탄식의 렌즈로 성경 읽기

시편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탄식의 렌즈로 읽어 본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시편 이외에도 욥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요나, 히스기야, 하박국,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서 탄식과 애痛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슬픔의 노래를 불렀는지 깨닫게 해주며, 인생에서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지나는 성도 개인이 자신의 고통, 상실, 좌절, 실망, 불안, 두려움, 분노, 슬픔 등의 다양한 감정을 자기 중심이나 자기 연민이 아닌 “하나님 중심 구조”(God-centered structure)의 언어들로 표출할 수 있는 길을 배울 수 있게 해 준다.⁷¹

(2) 개인 탄식문 작성 해보기

시편 88편을 비롯한 탄식시 형식과 탄식시의 표현들을 활용한 영성 일기를 작성해 본다. 자신이 무엇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왜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지 등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글로 적어 내려간다. 이런 작업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고 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의 변화를 관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2) 교회 공동체적 적용

야노프-불만(Janoff-Bulman)에 따르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 중 25% 정도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만, 트라우마 피해자들

71 Vroegop, 윗글, 159-160.

대다수는 비공식적인 도움과 지원에 의존한다.⁷² 이는 교회가 트라우마를 겪는 자들에게 비공식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⁷³

(1) 탄식 예배 도입

시편 88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의 예배 방식을 제시한다. 분기별로 혹은 특별주일을 정해서 탄식 예배를 도입해 본다. 시편 88편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예배를 진행해 볼 수 있다: 1) 힘찬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대신 조용한 반주에 맞추어 침묵하며 입례; 2) 시편 88편 교독; 3) 시편 88편의 내용과 감정을 전달하는 간단한 설교; 4) 탄식을 담은 찬양; 5) 시편 88편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탄식과 기도의 시간; 6) 성찬을 통한 말 없는 위로의 시간.

(2) 목회적 돌봄

① 소그룹

소그룹 인도자들에게 탄식시에 대해 가르치고,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안전한 영적, 감정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⁷⁴ 소그룹 안에서는 친밀한 가운데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하므로 참여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통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통하는 자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탄식의 여정을 함께 할 때 탄식을 통한

72 Ronnie Janoff-Bulman, *Shattered Assumptions: Toward a New Psychology of Trauma*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161. Carlson, 윗글, 54에서 재인용.

73 Carlson, 윗글, 54.

74 Vroegop, 윗글, 182-184.

은혜와 회복의 증인이 될 수 있다.

② 목회 상담

성급한 위로나 단순한 조언, 상황에 맞지 않는 신학적 해석을 제시하는 위험을 줄이고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 탄식시를 활용한다.⁷⁵ 1) 탄식시의 형식적 요소를 안내하며 선택한 탄식시를 함께 살펴본다. 내담자는 시편이 자신의 감정과 슬픔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시편 88편은 이러한 움직임조차 없는 매우 예외적인 시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급하게 찬양으로 전환하도록 재촉하지 않고 성경적 탄식의 언어로 자신의 감정과 슬픔을 토로하고 충분히 애통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시편 88편 기자가 토로하는 오래 지속된 고통과 슬픔일수록, 주변에 지지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독한 외로움과 고립의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져 묻는 시편 88편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블라이스(Blyth)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에이즈 감염자들이 겪는 정신적-사회적 고립감, 무시, 버림받음의 경험을 시편 88편이 잘 대변해 준다고 말한다.⁷⁶

2) 시편을 공부한 후에는 내담자가 시편의 틀을 활용하여 개인의 탄식시를 만들어보게 한다. 시편 88편을 비롯한 다양한 탄식시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토

75 Vroegop, 윗글, 165.

76 Blyth, 윗글.

로할 뿐만 아니라 탄식시의 구성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글을 만들다보면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를 찾아가는 “지도”를 갖게 된다.⁷⁷

3) 사회적 차원

시편 87-88-89편으로 이어서 읽도록 유도하는 시편 88편의 표제어는 개인의 탄식을 그가 속한 공동체가 겪는 시대적 문제에 비추어 해석하도록 요청한다. 교회가 공동체 구성원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불의, 소외, 차별, 폭력, 착취, 빈곤, 재난, 우울증 등을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시대의 아픔이자 사회적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임을 의식하며 함께 탄식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한 예로,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해석과 입장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고통 받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롬 12:15),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여러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예언자적 탄식”을 하는 것이 교회가 고통받고 깨어진 세상의 슬픔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⁷⁸ 블레인 윌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탄식은 연대를 형성하고(lament builds solidarity), 연대는 연약한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는다(solidarity vivifies the weary).”⁷⁹

77 Vroegop, 윗글, 166.

78 Soong-Chan Rah, *Prophetic Lament: A Call for Justice in Troubled Tim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5); 이영미, “예언적 영성으로서의 탄식: 애가의 탄식과 구원신학”, 『구약논단』 15/4 (2009): 10-29.

79 William Blaine-Wallace, “A Pastoral Psychology of Lament” (Ph.D. Dissertation, Tilburg University, 2009), 326.

7. 나가는 말

한국 교회는 어느 때보다 성경적인 탄식이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시편 88편은 응답이 없이 끝나는 유일한 탄식 시로서, 신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와 현실적 고난이 신앙의 일부임을 정직하게 드러낸다. 이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높은 찬양만큼 깊은 탄식이 공존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과 지연되는 구원은 지속적인 고통을 초래한다. 그러나 시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항거하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이는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역설이다. 시편 88편이 보여주는 응답 없는 탄식의 신학은,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본질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탄식은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응답이 부재한 현실과 임박한 죽음, 국가적 질서의 붕괴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을 증언한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교회는 개인 영성 훈련을 넘어, 공적 예배와 기도, 목회 현장에서 성경적 탄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과 더욱 진실되게 교제하며, 깨어진 세상에서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선교적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시편의 88편의 응답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향한 절규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얼굴 빛을 비추시고 모든 눈물을 닦으시며 죽음의 구덩이와 어둠마저 제하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인자는 영원하며, 마침내 그분께서 구원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 기민석, “하나님의 폭력과 신정론: 구약의 천상의회와 천사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9집 (2023), 11-52.
- 김정우, 「시편 주석 II」 (서울: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 김태경, “건강의 악화와 회복에 따른 탄원의 변화 과정 연구”, 「구약논단」 45집 (2012), 207-234.
- 낸시 드클라이세-왈포드, 로프 제이콥슨, 베스 라닐 태너, 「NIOCT 시편」 (강대이 옮김), (서울:부흥과 개혁사, 2019). 원제 deClaissé-Walford, Nancy L., Rolf A. Jacobson and Beth Laneel Tanner, *Psalms*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2014)
- 류사라, “하나님의 폭력(violence)과 욕의 패러디(parody)”, 「구약논집」 29집 (2023), 41-70.
- 월리엄 브라운, 「시편」 (하경택 옮김), (구약학입문시리즈 3;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 Brown, William P., *Psalms* (Interpreting Biblical Texts Se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 이영미, “예언적 영성으로서의 탄식: 애가의 탄식과 구원신학”, 「구약논단」 34집 (2009), 10-29.
- 이일레, “시편 88:11-13은 수사 의문문인가? 일반 의문문인가?”, 「성경원문연구」 35 (2014), 87-116.
- 조제한, 방기민, “시편 88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 「대학과 선교」 62 (2024), 45-74.
- 최창국, “시편의 애가에 나타난 기도의 지평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60 (2021), 164-198.
- Baglyos, Paul A. “Lament in the Liturgy of the Rural Church”,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36/4 (2009), 253-263.
- Blaine-Wallace, William, “A Pastoral Psychology of Lament” (Ph.D. Dissertation, Tilburg University, 2009).
- Blyth, Caroline. “I am alone with my sickness: voicing the experience of HIV- and AIDS-related Stigma Through Psalm 88”, *Colloquium* 44/2 (2012), 149-162.
- Broyles, C. C. “Lament, Psalms Of” in Tremper Longman III and Peter Enns ed.,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Wisdom, Poetry & Writing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8).
- Brown, William P. *Seeing the Psalms: A Theology of Metaphor* (Louisville: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2002).
- Brueggemann, Walter, *The Message of the Psalms* (Minneapolis: Augsburg, 1984).
- Carlson, Nathaniel A., "Lament: The Biblical Language of Trauma," *Cultural Encounters* 11/1 (2015), 50-68.
- Carson, Marion L. S., "Sheer Grace: Psalm 88, Depression and the Dark Night of the Spirit," *Communio Viatorum* 59/2 (2017), 160-176.
- Cole, Robert L., *The Shape and Message of Book III (Psalms 73-89)* (JSOT Supplement Series 30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Dickie, June F. "Psalm 88 with its Contexts (Historical, Literary, Canonical, Modern, and Psychological): Do they help with Interpretation?," *Scriptura* 122 (2023), 1-21.
- Gerstenberger, Erhard S., *Psalms, Parts 2 and Lamentations* (FOTL XV; Grand Rapids, MI: Eerdmans, 2001).
- Gillingham, Susan, *Psalms Through the Centuries: A Reception History Commentary on Psalms 73-151* (Wiley Blackwell Bible Commentaries; Oxford: Wiley, 2022).
- Hamilton Jr., James M. *Psalms,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Bellingham, WA: Lexham Academic, 2021).
- Harper, G. Geoffrey, "Lament and the Sovereignty of God: Theological Reflections on Psalm 88," David G. Firth(ed.), *Finding Lost Words: The Church's Right to lament* (Eugene, Oregon: Wipf & Stock, 2017), 80-93.
- Hossfeld, Frank-Loather and Eric Zenger, *Psalms 2: A Commentary on Psalms 51-100*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5).
- Joo, JongHun, "They Cried Out to God: Lamenting as a Way of Finding Hope in Uncertain and Challenging Times," 「생명과말씀」 30 (2021), 184-216.
- Kim, Hee-Suk, "An Intertextual Study of Psalm 88 in the Context of Psalms 84-89 and Its Theological Implications," 「개혁논총」 17 (2011), 9-40.
- Kraus, Hans-Joachim, *Psalms 60-150* (Continental Commentaries; Minneapolis: Augsburg, 1989).
- Mandolfo, C. "Psalm 88 and the Holocaust: Lament in Search of a Divine Response," *Biblical Interpretation* 15 (2007), 151-170.
- Marxhall, Anja, "Lament of the Walking Dead: The Lamenting Engagement with the Local Sphere, the Social Implications, and the Bodily Expression of Death in Ps 88 and Job 7,"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36/2 (2024), 191-205.

- Rah, Soong-Chan, *Prophetic Lament: A Call for Justice in Troubled Tim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5).
- Saliers, Don, "Psalms in Our Lamentable World," *Yale Journal of Music & Religion* 2 (2015), 104-105.
- Schmutzer, Andrew J., "Longing to Lament: Returning to the Language of Suffering," Andrew Achmutzer and David M. Howard, *Between Pain & Grace: A Biblical Theology of Suffering* (Chicago, Moody Publishers, 2016).
- Southwood, Katharine, "Metaphor, Illness, and Identity in Psalms 88 and 102,"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3/2 (2019), 228-246.
- Suderman, W. Derek, "The Cost of Losing Lament for the Community of Faith: On Brueggemann, Ecclesiology, and the Social Audience of Prayer," *Journal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6:2 (2012), 201-218.
- Strawn, Brent A. "The Black Hole ate the Center of the Psalms," *Interpretation* 78(2) (2024), 106-119.
- VanGemenen, Willem A., *Psalms* (The Expositor's Commentary 5 revised ed.;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Vroegop, Mark, *Dark Clouds, Deep Mercy: Discovering the Grace of Lament* (Wheaton, IL: Crossway, 2019).
- Waltke, Bruce K., James M. Houston, and Erika Moore, *The Psalms as Christian L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2014).
- Westermann, Claus,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 Wrenn, Rachel A., "Is he Psalmist Angry at God?: Psalm 88 and the Absent Nose," *Word & World* 40 (2020), 236-245.

검색어

기도, 탄식, 고통, 하나님의 부재, 시편 88편

The Unanswered Prayer of Lament: An Exegetical Study of Psalm 88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Ayun Kim

Sudo Inter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theological and pastoral significance of Psalm 88, often considered the darkest psalm in the Hebrew Psalter. Unlike most individual laments that move from complaint to praise, Psalm 88 concludes without resolution or divine response, presenting a unique case of sustained anguish and divine silenc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iterary structure and theological features of Psalm 88, examining its poetic elements, rhetorical flow, and theological implications.

Drawing on recent exegetical and theological scholarship, this study highlights its role as a vital witness to the full range of human experience before God- including despair, abandonment, and protest. Psalm 88 exemplifies a God-lament- a raw, honest protest that remains rooted in relationship despite the divine silence. The psalm's persistent cry in the absence of divine reply reveals a paradoxical expression of 'unanswered faith,' one that dares to confront God honestly yet endures even when divine intervention seems absent.

The study further reflects on the pastoral relevance of Psalm 88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church, where the tradition of lament has largely disappeared from public worship. It argues that reclaiming the language of lament can help faith communities engage more authentically with

www.kci.go.kr

experiences of suffering and divine silence. The paper proposes practical applications at three levels: personal (spiritual practices of lament), communal (incorporating lament in worship and pastoral care), and social (prophetic lament addressing collective suffering and trauma). Through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reading of Psalm 88, this study offers a framework for reclaiming lament as a meaningful and necessary expression of biblical faith in the Korean church context.

key words

prayer, lament, suffering, the absence of God, Psalm 88

투고일 : 2025년 07월 17일

심사일 : 2025년 08월 07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08월 14일

www.kci.go.kr